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24, Vol. 30, No. 4, 455~476.
http://dx.doi.org/10.20406/kjcs.2024.11.30.4.455

OPEN ACCESS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생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생태순간평가연구*

황 새 연[1)] 권 호 인[†]

본 연구는 음주의 사회적 맥락, 음주 동기, 정서 및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대학생의 매일의 음주 여부와 음주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56명이 14일간 음주와 관련된 사회적 맥락, 음주 동기, 정서와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생태순간평가로 보고하였고, 다층수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 간 수준에서,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당일 음주 여부와 유의하게 관련되었고, 저녁 외출 계획 유무와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당일 음주량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개인 내 수준에서는 함께 있는 사람의 음주량과 고양 동기가 당일 음주 여부와, 함께 있는 사람의 음주량이 당일 음주량과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다음날 음주 여부 및 음주량의 경우, 개인 간 수준에서 함께 있는 사람의 음주량과 저녁 외출 계획 유무가 익일 음주량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개인 내 수준에서는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익일 음주 여부와, 함께 있는 사람의 음주량과 고양 동기가 익일 음주량과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본 연구는 생태순간평가를 통해 대학생의 음주 여부 및 음주량과 관련있는 요인을 탐색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함께 어울리는 사람의 음주량이 음주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맥락적 관점에서 대학생 문제 음주 예방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음주, 사회적 맥락,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 음주 동기, 정서, 대학생, 생태순간평가

---

* 본 논문은 황새연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2023년도 전주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따라 이루어졌음.

1)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사 졸업, 다사랑병원
† 교신저자 : 권호인,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Tel : 063-220-4666, E-mail : hikwon14@jj.ac.kr

Copyright ©2024,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 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국 사회에서 음주 문제의 심각성은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알코올 사용장애 평생 유병률은 11.6%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1).

전 생애주기 중 대학 재학 기간은 알코올 소비량이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률이 가장 높다(Hasin et al, 2007). 또한 빈번하게 과음하는 대학생은 결석, 사고, 자살 등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직면할 가능성이 비음주자에 비해 25배 높다(Wechsler et al., 1995). 국내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학생은 일반 성인과 비교하였을 때 여학생의 월간 음주율과 남·녀의 고위험 음주율, 남·녀의 10잔 이상 음주량 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문제음주행태라고 볼 수 있는 '10잔 이상'의 1회 음주량은 2009년에 비해 12.4%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2배 이상 증가하여 대학생의 문제성 음주가 날로 심각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주영준 등, 2019). 음주의 빈도와 양 등 음주 실태가 높은 것은 사회적 기능 손상, 행동상의 문제,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 등 음주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이미라, 2012). 또한 매해 대학 행사에서 음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대학생의 음주는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적 및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초래하므로 개입이 시급한 사안이라 여겨진다. 특히 발달 단계상 초기 성인기(emerging adulthood)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에 형성된 음주 행동과 습관은 졸업 후 성인기의 음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이지현, 최홍일, 2010; O'Neil et al., 2001; Schulenberg & Maggs, 2002), 이 시기의 문제 음주는 성인기의 알코올 사용 장애를 예측하는 지표라는 점에서(O'Neil et al., 2001) 적절한 시기적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음주가 가능한 나이가 시작될 뿐 아니라 대학이라는 공간이 음주 가능성을 높이는 환경적 요인이 되지만(Andersson et al., 2007), 대부분의 학생들은 적절한 음주교육을 받지 못한 채 각종 음주와 함께하는 학교 행사에 노출되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주영준 등, 2019). 더하여 대학 재학 시기가 고위험 음주로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로 여겨지고 있어(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2002) 대학생 음주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음주 행동의 매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 요인들이 연구된 바 있다. 이들은 정서, 갈망, 음주 동기 등의 즉각적인 내부 경험과 물질 관련 단서, 함께 음주하는 사람 등의 사회적 맥락을 포함하는 외부 상황 요인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Shiffman, 200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자가 음주하는 당시의 장소나 함께 있는 사람과 같은 사회적 맥락은 음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O'Donnell et al., 2019).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음주는 다른 음주자와 함께 있을 때 발생한다(Simons et al., 2005). 술친구가 많은 것은 대학생의 문제 음주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으며(유채영, 이주경, 2016; 정슬기, 2008), 친구의 음주량이 많을수록 대학생 문제 음주의 심각성이 높았다(노안영, 정민, 2003). 특히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 관대하고 허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 개인 요인과 함께 사회적 맥락에서 음주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콜 관련 단서에 노출되는 것은 음주에 대한 갈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

예로 Ramirez와 Miranda(2014)는 알콜 관련 단서를 제시하는 것이 알콜 갈망을 불러일으켰다고 보고하였으며, Kuerbis 등(2020)은 알콜에 노출되는 상황 등 음주 가능성이 높은 맥락에 있을 때 고위험 음주 맥락이 갈망을 야기하고 음주량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음주동기는 대학생의 음주 빈도와 문제 음주를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예측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Carey & Correia, 1997; Cooper, 1994). Cooper(1994)는 Cox와 Klinger(1988)의 개념적 모형에 기초하여 음주동기의 4요인 모형을 제시했다. 이 중 내적 동기로는 긍정 정서를 향상하고자 하는 고양동기와 부정 정서를 감소하거나 제어하려는 대처동기가 포함되며, 외적 동기로는 사교활동을 위한 사회적 동기, 사회적 압력에 따르고자 하는 동조동기가 포함된다. 음주동기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청년들은 주로 사회적 동기와 고양 동기로 인해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ilwein & Looby, 2018; Kuntsche & Müller, 2011), 두 동기 중 고양동기는 과음과 같은 알코올 소비 패턴과 가장 일관된 관련을 보였다(Kuntsche et al., 2006; Merrill & Read, 2010). 복합적인 음주 동기는 문제 음주가 유발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선행요인을 매개하는 최종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신원우, 2010) 문제 음주를 예방하는 데 우선적인 개입 지점으로 여겨진다.

정서와 음주의 연관성 또한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졌는데, 먼저 우울과 같은 부정 정서는 음주동기를 통해 음주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Collins et al., 1990; Glantz & Pickens, 1992). 대학생은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에 대처하고자 알코올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고(유채영, 김혜미, 2010; Benton et al., 2006), 우울한 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음주 빈도가 유의미하게 더 잦으며(김계하, 김옥수, 2000), 알코올 남용 가능성 및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수현, 2008). 긍정 정서가 음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Shoal과 Giancola(2003)는 긍정 정서는 행동억제체계를 완화하여 음주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는 음주로 인해 직업적, 대인관계적 기능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하며, 음주 빈도, 음주량, 과음 빈도 등 고위험 음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et al., 2010).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는 음주의 결과임과 동시에 다음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피드-포워드(feed-forward) 절차의 일부일 수 있다. 이는 과거 음주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통해 이루어 지는데(Maisto et al., 1999), 다수의 연구에서 부정적 음주 결과를 더 많이 경험한 음주자들은 음주의 결과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Gaher & Simons, 2007; Logan et al., 2012), 이전 음주 결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이후 음주량의 증가 및 부정적 음주 결과와 관련이 있었다(Lee et al., 2010; Merrill et al., 2013a; Merrill et al., 2013b). 또한 Epler 등(2014)의 연구에 따르면 문제 음주 집단에서 숙취를 경험한 후 오히려 다음 음주가 더 빨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 결과 경험이 음주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처럼 그동안 대학생 문제 음주와 관련된 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이 다수 있어 왔으나, 대개 특정 시점에 회고적으로 보고한 자기보고식 횡단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약물 사용연구에서는 약물 사용을 촉발하는 사회적 압력과 같은 직접적인 환경 요인과 약

물 사용 욕구, 감정 상태 등 내적 경험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음주와 관련된 맥락은 시시각각 변하고, 감정 상태도 매 순간 변하는 경향이 강하며, 음주 동기 또한 음주 행동에 매우 근접한 선행변인(김상희, 2011)이기 때문에 측정 시기가 연구 방법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횡단 연구는 회상 오류 및 기억의 왜곡 가능성으로 인해 개인의 경험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어려우며(Clark & Teasdale, 1982),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힘들다. 생태순간평가(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EMA)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론이다. 연구 참여자의 현재 경험과 행동들을 실제 생활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하도록 하여 실제 삶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생태학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으며(Stone & Shiffman, 1994), 회상 편향을 줄일 수 있다(Robinson & Clore, 2002).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생태순간평가를 활용한 음주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Collins et al., 1998; Dvorak et al., 2013; O'Donnell et al., 2019; Szeto et al., 2019). 한 예로 Dvorak과 Simons(2014)는 낮 동안의 긍정정서가 당일의 음주행동과 관련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Courtney와 Russell(2021)은 음주 전 긍정 정서가 높을 때 음주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더불어 O'Donnell 등(2019)은 정서보다는 사회적 맥락이 음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고양동기는 음주의 시작을 예측하나, 동조동기가 음주 시작과 음주량 모두를 예측한다고 하였다. 국내연구인 박미숙(2020)의 연구에서는 경험 표집법을 활용하여 스트레스와 정서, 알코올 갈망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으나 사례 수가 적어 한계가 있었다.

이처럼 그동안 음주 행동에 대한 생태순간평가 관련 연구들이 여럿 있었으며, 이들은 정서나 사회적 맥락, 음주 동기 등을 개별적으로 혹은 일부 요인에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여 음주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Sudhinaraset et al., 2016),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개인 내적/외적 요소는 개별적이라기보다 동시에 복합적으로 음주 행동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알콜 관련 요인들이 당일 뿐 아니라 다음날 음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Luk et al., 2018)를 고려할 때, 분석 시 당일의 음주 뿐 아니라 익일의 음주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생태순간평가를 통해 이들 요인이 당일 혹은 익일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대학생의 일상에서 어떠한 요인이 이들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맥락, 정서, 음주 동기,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동시에 측정하고, 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당일 뿐 아니라 다음 날의 음주 결과를 포함하여 이들 요인이 보다 지속적으로 이후 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그날의 사회적 맥락, 음주 동기, 정서,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는 그날의 음주 여부 및 음주량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그날의 사회적 맥락, 음주 동기, 정서,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는 다음날의 음주여부 및 음주량에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J 지역 3개 대학 관련 커뮤니티에 광고를 게시하여 모집하였다. 광고를 보고 지원한 이들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통해 선정기준을 확인하였다. 연구 선정기준은 선행 연구(O'Donnell et al., 2019; Szeto et al., 2019)를 참고하여 지난 4주간 4회 이상 음주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이하 대학생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총 5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만 21.7세(*SD*=2.59)였으며, 여성이 40명(71.4%), 남성이 16명(28.6%)이었다. 참가자들의 지난 4주간 음주 횟수는 평균 7.41회(*SD*=4.42)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기저선 평가문항

한국형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 검사(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K). 1989년 WHO에서 개발한 AUDIT(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를 이병욱 등(2000)이 국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개 문항으로, 음주의 양과 빈도에 관한 3문항, 알코올 의존에 관한 3문항, 음주로 유발된 문제에 관한 4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0점에서 4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되며, 4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12점 이상을 '문제 음주', 15점 이상을 '알코올 사용 장애', 26점 이상을 '알코올 의존'으로 추정하여 선별할 것을 제안한다(김종성 등, 1999).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 계수는 .78로 나타났다.

음주 동기 척도. Cox와 Klinger(1988)의 음주 동기 모형에 Cooper(1994)의 일치 동기 문항을 첨가하여 신행우와 한성열(1999)이 제작한 음주 동기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동기, 고양 동기, 대처 동기, 일치 동기의 4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며, 하위척도당 각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음주 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음주 동기 전체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79로 나타났고, 고양 동기 .78, 대처 동기 .87, 동조 동기 .66, 사교 동기 .87로 나타났다.

한국판 럿거스 알코올 문제 척도(Korean Version of the Rutgers Alcohol Problem Inventory; K-RAPI). White와 Labouvie(1989)가 개발하고 김소정과 권정혜(2019)가 국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 총 21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결과보고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 계수는 .88이었다.

생태순간평가 문항

본 연구에서는 하루 3회 구글 설문지 링크를 통해 생태순간평가 보고를 하였다. 생태순간평가 문항은 선행연구(Simons et al., 2005; Szeto et al., 2019)를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이전 기록 이후의 음주양상(음주 여부, 음주량, 음주 형태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음주와 관련된 사회적 맥락은 총 5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저녁 외출 계획을 유/무로 응답하였고(O'donnell et al., 2019), 현

재 위치(Simons et al., 2005), 현재 함께 있는 사람(Ramirez & Miranda, 2014), 함께 있는 사람의 음주량을 0점(0잔)부터 6점(6잔 이상)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O'donnell et al., 2019). 또한 현재 주변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알콜 관련 단서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직접적 단서 존재', '간접적 단서 존재', '직·간접 단서 모두 존재', '단서 없음'으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하고, 이를 단서 유무로 양분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Ramirez & Miranda, 2014).

음주 동기는 4가지 하위 척도인 사회적 동기, 대처 동기, 고양 동기, 일치 동기를 6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현재 정서는 Watson 등(1988)이 개발한 PANAS 척도를 단축형으로 수정한 Thompson (2007)의 PANAS-SF척도를 연구자들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가 각 5문항씩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전 평가 이후 음주 결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판 럿거스 알코올 문제 척도(K-RAPI)를 사용하였다. 반복 응답의 피로도를 최소화 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김소정, 권정혜, 2019) 12문항을 선별하였으며, 5점 연속척도를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윤혜미 외, 1999) 유·무양분 문항으로 측정하고 총합으로 합산하였다. 문항내용으로는 이전 평가 이후 음주로 인해 '숙제나 시험공부를 할 수 없었다', '싸움이 붙거나 나쁜 행동을 하거나 함부로 행동했다'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절차

연구 절차는 그림 1과 같이 진행되었다. 연구 설명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내 후 참가자들은 AUDIT-K, 음주동기 평가, K-RAPI로 구성된 5분 가량의 음주 기저선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생태순간평가 기록 방법에 대해 교육받았다. 참가자들은 14일간의 생태순간평가 기간동안 하루 3회(오전 11시, 오후 4시, 오후 9시), 총 42회에 걸쳐 전자일기 링크가 포함된 연구 참여 안내 문자를 받았으며, 문자 발송 이후 최대 90분 내에 응답을 완료하도록 안내받았다(약 1-2분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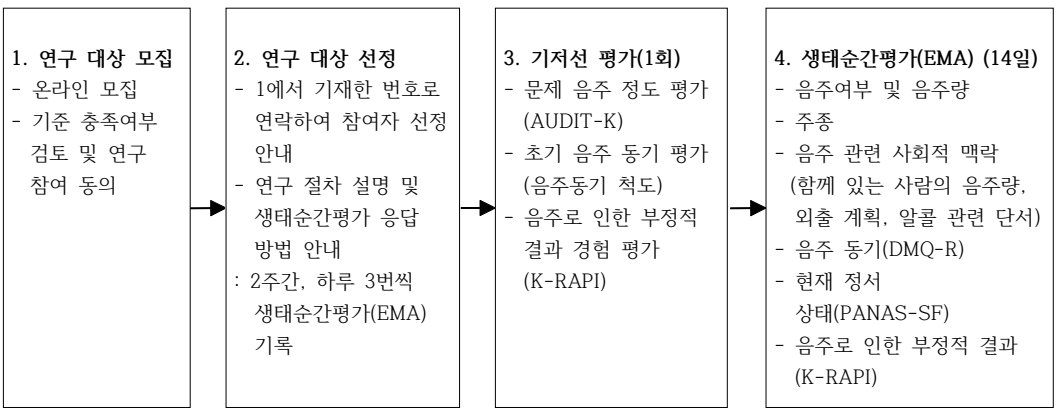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절차

14일간의 생태순간평가 측정이 종료된 후 응답률이 50% 이상인 참가자에게는 20,000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이 지급되었으며, 50% 미만의 응답률을 기록한 참가자에게는 5,000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이 지급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5.0을 사용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기저선 평가에서 측정한 연구 참여자의 문제 음주 정도와 초기 음주 동기,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 경험의 평균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생태순간평가를 통해 수집된 집중종단자료(Intensive Longitudinal Data)는 다층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1849개의 측정 시점이 56명의 참가자에 내재된(nested) 위계적 구조로 정리되었다. 각 측정시점에서 사회적 맥락(함께 있는 사람의 음주량, 저녁 외출 계획 유무, 알콜 관련 단서 유무), 음주 동기(사회적 동기, 대처 동기, 고양 동기, 일치 동기), 정서(긍정정서, 부정정서),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 음주 양상(음주 여부, 음주량 등)을 측정하였다. 종속변인인 음주 에피소드는 보통 하루에 한 번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루 3회 측정된 응답을 일 단위(daily)로 집계하여 사용하였다. 종속변수 중 음주여부의 경우 그 날 16시, 21시, 다음 날 11시 평가 응답을 합산하여 음주경험이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음주량은 16시, 21시, 다음 날 아침 11시에 응답한 음주량의 합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준 1을 반복관찰치(개인 내; 일 단위(daily))로 구성하였으며, 11시, 16시, 21시에 측정한 값을 평균 내어 그 날의 반복관찰치로 사용하였다. 수준 2의 자료(개인 간; 한 사람의 평균치)는 개인 내 모든 측정 시점의 평균치를 개인 간 관찰치로 사용하였다. 다층 모형을 통한 자료분석에는 제한된 최대우도법(restricted maximum likelihood e-quation)을 사용하였다. 수준 1에서 개인 내 변인들은 각 개인의 평균치로 중심화하였으며, 수준 2에서 개인 간 변인들은 전체 평균치로 중심화하였다. 다층모형을 통해 검증하는 모형은 다음과 같다.

수준 1

$$DRINK_{ti}=\pi_{0i}+\pi_{1i}(study\ \ day_{ti})+\pi_{2i}(SC1_{ti})+\pi_{3i}(SC2_{ti})+\cdots+e_{ti}$$

수준 2

$$\pi_{0i}=\beta_{00}+\beta_{01}(SC1_i)+\beta_{02}(SC2_i)+\cdots+r_0$$
$$\pi_{1i}=\beta_{10}+r_1$$
$$\pi_{2i}=\beta_{20}+r_2$$
$$\pi_{3i}=\beta_{30}+r_3$$
$$\vdots$$
$$\pi_{11i}=\beta_{110}+r_{11}$$

여기서 $DRINK_{ti}$는 그 날의 음주 여부, 그 날의 음주량, 다음 날의 음주 여부, 다음 날의 음주량을 의미하며, Study day는 연구일, SC는 사회적 맥락, DM은 음주 동기, AF는 정서, NC는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의미한다.

결 과

기저선 평가 분석

본 연구 참여자들이 기저선 측정에서 보고한 문제 음주 정도를 살펴본 결과,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K) 점수는 평균 14.68점(*SD*=6.50)이었으며, 문제 음주 선별 기준인 12점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이 38명(67.9%)으로 나타나(김종성 외, 1999), 과반수 이상의 참여자들이 문제 음주 특성을 보임을 시사하였다. 한국판 럿거스 알코올 문제 척도(K-RAPI)를 통해 측정된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 경험 역시 평균 10.77점(*SD*=9.64)이었으며, 부정적 음주 결과 경험의 절단점인 7점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은 32명(57.1%)으로 나타났다. 음주 동기 척도를 통해 측정한 참여자의 기저선 음주 동기는 사회적 동기가 3.6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SD*=0.78), 대처 동기(*M*=3.09, *SD*=1.01), 고양 동기(*M*=2.79, *SD*=0.86), 일치 동기(*M*=2.58, *SD*=0.80) 순으로 나타났다.

생태순간평가 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 56명이 2주간 기록한 생태순간평가 엔트리는 총 2352개였으며, 참여기간 동안 기록하지 않은 503개의 엔트리를 제외하고 총 1849개의 엔트리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일별(daily) 수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785일의 기록 중 225일(30.5%)에서 음주 행동이 포착되었다.

생태순간평가를 통해 보고된 연구 참여자의 음주 양상을 표 1에 제시하였다. 개인별 평균 음주 일수는 4.02일(*SD*=2.11)이며, 평균음주량

표 1. 생태순간평가의 음주 양상

변인		전체집단 (*n*=56) *M(SD)* 또는 *N*(%)
14일간 음주경험일		4.02(2.11)
1일 평균 음주량		6.59(4.19)
주종	소주	120(35.19)
	맥주	128(37.54)
	폭탄주	42(12.32)
	양주	9(2.64)
	와인	16(4.69)
	막걸리	14(4.11)
	칵테일	3(0.88)
	청주	3(0.88)
	기타	6(1.76)
함께 음주한 사람	어머니	31(8.91)
	아버지	33(9.48)
	남자형제	19(5.46)
	여자형제	20(5.75)
	지인	24(6.90)
	애인	43(12.36)
	친구	111(31.90)
	혼자	58(16.67)
	친척	9(2.59)
음주장소	학교	1(0.04)
	집	119(40.75)
	여가시설	9(3.08)
	술집	78(26.71)
	식당	40(13.70)
	친구 집	34(11.64)
	이동중	1(0.34)
	기타	10(3.42)

주. 비율(%)은 전체 참여자의 복수응답수로 나눈 비율임.

은 6.59잔(*SD*=4.19), 주종은 폭탄주(소주+맥주)를 포함하여 소주와 맥주를 가장 많이 음용하였다. 함께 음주한 사람으로는 친구가 111회(31.90%)로 가장 빈번하였고, 혼자(16.67%), 애인(12.36%)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 장소로는 집이 119회(40.75%)로 가장 많았고, 술집(26.71%), 식당(13.70%), 친구 집(11.64%) 순서로 빈번하였다.

표 2. 다층수준모델을 이용한 주요 변인이 그 날 음주 여부 및 음주량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고정효과	Estimate	SE	t	95% 신뢰구간 하한	95% 신뢰구간 상한
	수준 2(개인 간)					
	절편	-1.02	0.11	-9.65	-1.23	-0.81
	SC1-함께 있는 사람의 음주량	0.04	0.14	0.32	-0.22	0.31
	SC2-저녁 외출 계획 유무	0.43	0.58	0.73	-0.72	1.57
	SC3-알콜 관련 단서 유무	-0.05	0.42	-0.11	-0.88	0.78
	DM1-사회적 동기	0.03	0.16	0.16	-0.28	0.34
	DM2-대처 동기	0.18	0.16	1.16	-0.13	0.50
	DM3-고양 동기	-0.08	0.18	-0.43	-0.44	0.28
	DM4-일치 동기	-0.16	0.18	-0.91	-0.51	0.19
	AF1-긍정정서	0.07	0.05	1.33	-0.03	0.16
	AF2-부정정서	0.02	0.05	0.37	-0.08	0.11
그 날 음주 여부	**NC-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	**0.09**	**0.04**	**2.25***	**0.01**	**0.17**
	수준 1(개인 내)					
	Study day	0.01	0.03	0.39	-0.04	0.06
	SC1-함께 있는 사람의 음주량	**0.77**	**0.20**	**3.87*****	**0.38**	**1.17**
	SC2-저녁 외출 계획 유무	-0.02	0.68	-0.03	-1.37	1.32
	SC3-알콜 관련 단서 유무	0.82	0.57	1.43	-0.31	1.95
	DM1-사회적 동기	0.07	0.22	0.32	-0.35	0.49
	DM2-대처 동기	-0.15	0.22	-0.69	-0.58	0.28
	DM3-고양 동기	**0.70**	**0.24**	**2.87****	**0.22**	**1.18**
	DM4-일치 동기	0.08	0.24	0.35	-0.39	0.56
	AF1-긍정정서	-0.13	0.08	-1.66	-0.29	0.02
	AF2-부정정서	-0.05	0.08	-0.60	-0.20	0.11
	NC-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	-0.06	0.07	-0.85	-0.20	0.08

표 2. 다층수준모델을 이용한 주요 변인이 그 날 음주 여부 및 음주량에 미치는 영향 (계속)

종속변수	고정효과	Estimate	SE	t	95% 신뢰구간 하한	95% 신뢰구간 상한
	수준 2(개인 간)					
	절편	6.21	0.54	11.43	5.14	7.28
	SC1-함께 있는 사람의 음주량	1.29	0.73	1.76	-0.15	2.72
	SC2-저녁 외출 계획 유무	**8.49**	**3.13**	**2.71****	**2.32**	**14.66**
	SC3-알콜 관련 단서 유무	0.14	2.29	0.06	-4.37	4.65
	DM1-사회적 동기	0.00	0.85	-0.01	-1.68	1.67
	DM2-대처 동기	-0.16	0.87	-0.18	-1.86	1.55
	DM3-고양 동기	0.71	1.00	0.72	-1.25	2.68
	DM4-일치 동기	-0.55	0.95	-0.58	-2.41	1.32
	AF1-긍정정서	-0.18	0.26	-0.69	-0.69	0.33
	AF2-부정정서	0.28	0.27	1.06	-0.24	0.81
그 날 음주량	**NC-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	**0.55**	**0.24**	**2.31***	**0.08**	**1.02**
	수준 1(개인 내)					
	Study day	0.15	0.15	1.02	-0.14	0.45
	SC1-함께 있는 사람의 음주량	**3.54**	**0.98**	**3.61*****	**1.61**	**5.47**
	SC2-저녁 외출 계획 유무	-3.68	3.62	-1.02	-10.80	3.45
	SC3-알콜 관련 단서 유무	2.07	3.08	0.67	-3.98	8.12
	DM1-사회적 동기	1.15	1.13	1.02	-1.07	3.38
	DM2-대처 동기	0.90	1.14	0.79	-1.35	3.15
	DM3-고양 동기	1.13	1.28	0.88	-1.39	3.65
	DM4-일치 동기	0.39	1.27	0.31	-2.10	2.89
	AF1-긍정정서	-0.10	0.42	-0.23	-0.91	0.72
	AF2-부정정서	-0.50	0.43	-1.16	-1.35	0.35
	NC-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	-0.05	0.41	-0.13	-0.86	0.75

주. Study day: 연구일; SC: 사회적 맥락; DM: 음주 동기; AF: 정서; NC: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
*p<.05, **p<.01, ***p<.001

생태순간평가 일기법으로 2주간 수집한 참여자의 당일 음주 여부 및 음주량의 예측 요인을 다층 수준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당일 음주 여부의 경우 개인 간 수준에서는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β=.09, p<.05), 개인 내 수준에서는 함께

있는 사람의 음주량(β=.77, p<.001)과 고양 동기가(β=.70, p<.01)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알콜 관련 단서 유무, 저녁 외출 계획 유무, 사회적 동기, 대처 동기, 일치 동기와 정서는 당일 음주 여부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당일의 음주량의 경우 개인 간 수준에서 저녁 외출 계획 유무와(β=8.49, p<.01)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β=.55, p<.05)가 높은 음주

표 3. 다층수준모델을 이용한 주요 변인이 다음 날 음주 여부 및 음주량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고정효과	Estimate	SE	t	95% 신뢰구간 하한	95% 신뢰구간 상한
다음 날 음주 여부	수준 2(개인 간)					
	절편	-0.85	0.10	-8.52	-1.04	-0.65
	SC1-함께 있는 사람의 음주량	0.10	0.13	0.81	-0.15	0.35
	SC2-저녁 외출 계획 유무	0.34	0.55	0.62	-0.74	1.43
	SC3-알콜 관련 단서 유무	-0.07	0.42	-0.17	-0.89	0.75
	DM1-사회적 동기	-0.14	0.16	-0.86	-0.45	0.18
	DM2-대처 동기	0.01	0.15	0.08	-0.29	0.31
	DM3-고양 동기	0.14	0.18	0.75	-0.22	0.49
	DM4-일치 동기	0.02	0.17	0.12	-0.32	0.36
	AF1-긍정정서	0.05	0.05	1.12	-0.04	0.14
	AF2-부정정서	0.01	0.05	0.25	-0.08	0.10
	NC-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	-0.02	0.05	-0.45	-0.11	0.07
	수준 1(개인 내)					
	Study day	-0.02	0.03	-0.77	-0.08	0.03
	SC1-함께 있는 사람의 음주량	0.05	0.17	0.28	-0.29	0.39
	SC2-저녁 외출 계획 유무	-0.98	0.65	-1.52	-2.25	0.28
	SC3-알콜 관련 단서 유무	0.62	0.58	1.06	-0.53	1.76
	DM1-사회적 동기	0.19	0.21	0.89	-0.23	0.61
	DM2-대처 동기	-0.14	0.21	-0.70	-0.55	0.26
	DM3-고양 동기	-0.34	0.24	-1.45	-0.81	0.12
	DM4-일치 동기	-0.03	0.24	-0.14	-0.50	0.44
	AF1-긍정정서	-0.14	0.08	-1.88	-0.29	0.01
	AF2-부정정서	0.00	0.08	0.06	-0.15	0.16
	NC-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	**0.28**	**0.10**	**2.85****	**0.09**	**0.47**

표 3. 다층수준모델을 이용한 주요 변인이 다음 날 음주 여부 및 음주량에 미치는 영향 (계속)

종속변수	고정효과	Estimate	SE	t	95% 신뢰구간 하한	95% 신뢰구간 상한
	수준 2(개인 간)					
	절편	5.95	0.58	10.31	4.81	7.09
	SC1-함께 있는 사람의 음주량	**1.71**	**0.77**	**2.22***	**0.19**	**3.24**
	SC2-저녁 외출 계획 유무	**6.79**	**3.28**	**2.07***	**0.33**	**13.25**
	SC3-알콜 관련 단서 유무	0.52	2.43	0.21	-4.28	5.31
	DM1-사회적 동기	-0.88	0.90	-0.98	-2.66	0.89
	DM2-대처 동기	-0.80	0.92	-0.87	-2.61	1.01
	DM3-고양 동기	1.03	1.06	0.97	-1.06	3.12
	DM4-일치 동기	0.58	1.01	0.58	-1.40	2.57
	AF1-긍정정서	-0.19	0.27	-0.69	-0.73	0.35
	AF2-부정정서	0.29	0.28	1.01	-0.27	0.84
다음 날 음주량	NC-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	-0.02	0.27	-0.07	-0.55	0.51
	수준 1(개인 내)					
	Study day	-0.02	0.17	-0.12	-0.35	0.31
	SC1-함께 있는 사람의 음주량	**-2.25**	**1.03**	**-2.18***	**-4.28**	**-0.22**
	SC2-저녁 외출 계획 유무	-7.26	3.81	-1.91	-14.75	0.23
	SC3-알콜 관련 단서 유무	0.24	3.33	0.07	-6.30	6.78
	DM1-사회적 동기	1.08	1.22	0.88	-1.32	3.48
	DM2-대처 동기	1.10	1.22	0.90	-1.31	3.50
	DM3-고양 동기	**-2.71**	**1.36**	**-1.99***	**-5.39**	**-0.04**
	DM4-일치 동기	-0.57	1.39	-0.41	-3.30	2.16
	AF1-긍정정서	-0.08	0.45	-0.18	-0.97	0.81
	AF2-부정정서	-0.35	0.48	-0.72	-1.30	0.60
	NC-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	2.77	0.52	5.33	1.75	3.79

주. Study day: 연구일; SC: 사회적 맥락; DM: 음주 동기; AF: 정서; NC: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
*p<.05, **p<.01, ***p<.001

량과 관련있었다. 개인 내 수준에서는 함께 있는 사람의 음주량이 당일 음주량의 증가와 강력한 관련성을 보였다(β=3.54, p<.001). 알콜 관련 단서 유무, 음주 동기와 정서는 당일 음주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생태순간평가 일기법으로 2주간 수집한 다

음날의 음주 여부 및 음주량에 대한 다층 수준 모델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개인 내 수준에서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는 것(β=.28, p<.01)이 익일 음주 여부를 예측하였으며, 사회적 맥락, 음주동기와 정서는 개인 간 및 개인 내 수준 모두에서 익일 음주 여부를 예측하지 못했다.

다음날의 음주량의 경우 개인 간 수준에서 함께 있는 사람의 음주량과(β=1.71, p<.05), 저녁 외출 계획 유무가(β=6.79, p<.05) 익일 음주량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개인 내 수준에서는 함께 있는 사람의 음주량과(β=-2.25, p<.05) 고양동기가(β=-2.71, p<.05) 익일 음주량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알콜 관련 단서 유무,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 사회적 동기, 대처 동기, 일치 동기와 정서는 익일 음주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음주의 사회적 맥락, 음주 동기, 정서와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당일 및 익일 음주 여부와 음주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시간과 상황에 따라 쉽게 변화하는 변인들을 타당도 있게 측정하고자 생태순간평가를 활용하여 2주간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다층 수준 모델을 활용하여 개인 내적 과정과 개인 간 차이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날의 사회적 맥락과 알콜 관련 단서 노출, 정서가 모두 포함되었을 때 사회적 맥락이 그날의 음주 여부와 음주량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었으며, 다음 날의 음주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맥락 중 함께 있는 사람의 음주량은 개인 내 수준에서 당일 음주 여부와 음주량을 예측하는 유의한 요인이었으며, 개인 간 수준에서는 정적으로, 개인 내 수준에서는 부적으로 다음 날의 음주량을 예측하였다. 또한 저녁 외출 계획 유무는 개인 간 수준에서 당일과 다음 날의 음주량을 예측하는 요인이었다. 즉, 그날 어울리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실수록, 다음 날에는 음주량이 적어지지만 당일에는 술을 마실 확률이 높을 뿐 아니라 많은 양의 음주를 하며, 외출 계획이 잦은 사람일수록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O'donnell et al., 2019; 유채영, 이주경, 2016; 유채영, 김혜미, 2010), 대학생의 음주가 알콜 단서에 대한 노출이나 내적 정서보다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둘째, 음주 동기 중 고양 동기는 당일의 음주 여부를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익일 음주량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반면 사회적 동기, 대처 동기와 일치 동기는 개인 간 및 개인 내 수준에서 음주 여부와 음주량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즉, 대학생은 부정적 기분에 대처하거나 소외되지 않기 위해, 또는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기 위해 음주를 하기보다 즐거운 기분을 느끼고자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들이 사회적 동기와 고양 동기로 인해 음주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며(Kilwein & Looby, 2018; Kuntsche & Müller, 2011), 사회적 동기와 고양 동기는 음주량에, 대처 동기와 일치 동기는 음주 빈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박경민, 이민규, 2005). 흥미롭게도 본 연구 결과 고양 동기를 가진 다음 날 음주량이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고양 동기로 인해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적은 양의 음주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고양 동기를 통해 음주하는 경우 음주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그날의 고양 동기가 그날의 음주 시작을 예측하지만, 음주 지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O'Donnell 등(2019)의 연구를 확장하는 결과이다. 즉 긍정 기분을 고양시키기 위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면서 음주량을 증가시키지는 않으며, 다음 날에는 음주를 자제한다는 것이다. O'Donnell 등(2019)은 자신의 정서를 고양시키고자 하는 동기는 음주를 시작하는 행동에 의해 달성되지만 숙취나 술주정 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면서 음주 지속을 방해한다고 설명하였다. 향후 고양 동기가 음주의 시작과 지속 등 서로 다른 형태의 음주 행동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동기 중 고양 동기만이 음주 행동에 설명력을 가진다는 결과에 대한 또 한가지 가능성으로, 본 연구가 수행된 시기인 Covid-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의 음주 특징이 관련 있을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2021년 발표한 '2020 주류 시장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월 평균 음주 빈도는 9.0일로 직전 5개년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COVID-19로 인해 혼술(혼자 술을 마시는 것)과 홈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늘어남으로써 온라인 주문이 활성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1).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외출이 제한되며 사람들은 다양한 활동을 즐기기 어려워졌고, 따라서 기분을 고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음주를 선택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에는 주로 친목(74.9%), 회식(67.3%) 상황에서 음주가 이루어졌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혼자 있을 때(70.7%), TV・콘텐츠를 볼 때(43.0%),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할 때(40.0%)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0). 즉 사회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술자리가 현저히 줄어듦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음주 동기가 저하되고, 소외되지 않기 위해 술을 마실 가능성이 감소한 것에 더하여 대학생들이 술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사라지면서(김현정, 2019) 일치 동기의 영향이 약화된 것으로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선행 연구에서 대처 동기는 음주로 인한 행동 및 대인관계 문제를 예측하였고(신행우, 1999), 대학생의 우울과 음주문제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장수미, 2017) 본 연구에서는 대처동기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같은 결과는 여러 동기가 동시에 측정되었을 때, 대처동기가 유의한 알콜 소비를 예측하지 않았다는 Cooper(1994)와 O'Donnell 등(201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알콜관련 단서는 음주 갈망을 일으키며, 이는 곧 과음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한(Thomas et al., 2005; Curtin et al., 2005) 선행연구와 달리 알콜 관련 단서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는 유의한 설명력을 갖지 못했다. Raminez와 Miranda(2014)의 연구에서 알콜 관련 단서가 갈망을 유발하고 갈망은 이후의 음주량을 예측하였는데, 이는 음주 문제가 더 심각한 참여자일 수록 두드러졌다. 아울러 반복적인 음주를 통해 알콜 관련 단서가 음주의 효과와 연

합되면서 갈망을 유발한다는 매커니즘을 고려했을 때, 알콜 관련 단서는 알코올 중독자의 음주패턴과 보다 연관이 깊은 것 같다.

또한 정서가 대학생의 음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가 다수 존재했음에도(김민경, 2012; 김한나 등, 2013) 본 연구에서는 당일과 익일 음주 여부 및 음주량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지 못했다. 이 같은 결과는 초기 성인기 표본을 대상으로 생태순간평가를 한 O'Donnell 등(201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대학생의 음주 행동이 개인 내적 정서 상태 보다는 주로 사회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한 가지 가능성으로 선행연구에서 문제 음주를 예측하는 주요 정서는 우울과 불안(윤숙희 등, 2006; 정슬기, 2008)으로 보고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보다 일반적인 긍정 및 부정 정서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인 정서보다 우울, 불안 등 특정된 정서가 대학생의 음주를 예측하는 요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특정 정서가 음주와 관련있는지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많이 경험하는 것은 개인 간 수준에서 당일 음주여부 및 음주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개인 내 수준에서 익일 음주 여부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즉,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많은 양의 술을 자주 마시며, 특히 음주 후 부정적인 결과를 많이 경험한 다음 날 또 다시 술을 마실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금주에 실패하고, 친구와 다투는 것 등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더라도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음주 후 부정적 결과를 많이 경험할수록 이전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Gaher & Simons, 2007; Lee et al., 2010; Logan et al., 2012), 이전 음주 결과의 긍정적인 유인가는 이후 음주량의 증가를 초래하였다(Lee et al., 2010; Merrill et al., 2013a; Merrill et al., 2013b). 본 연구의 결과는 음주로 인한 다수의 부정적 결과 경험이 익일 음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며, 대학생들이 부정적 결과를 정상화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익일 음주량을 예측한다는 결과는 부정적 결과를 많이 경험할수록 이를 정상화하여 다음 음주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문제 음주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고위험 문제 음주자에 대한 개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에서 당일 및 익일 음주 여부와 음주량을 예측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먼저 당일 음주 예측요인을 확인한 결과, 고양 동기를 가지는 날 음주 확률이 높았으며, 함께 있는 사람의 음주량은 음주 확률을 높일 뿐 아니라 음주량의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저녁 외출 계획을 자주 가지는 사람일 수록 많은 양의 술을 마시며,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술을 자주,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문제 음주가 음주 동기나 정서 등 개인 내적인 경험보다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즉, 기분을 좋게 하고자 술을 마시는 경우 음주 확률은 높아지지만 음주량이 높지 않아 적절한 음주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음주의 시작 뿐 아니라 음주량의 증가로 이어져 폭음 빈도를 높이며, 집 밖으로 나가 사회적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일수록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결과 또한 사회적 맥락이 폭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존의 음주문제에 대한 개입이 동기 강화나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한 내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문제 음주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이나 또래 집단의 영향을 중요하게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주요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생태순간평가를 통해 회상 오류를 최소화하였으나, 모든 음주 평가가 음주 당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므로 회상 오류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에는 음주를 시작할 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상황 평가 세션을 개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의 시점상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상황적 특수성이 있었다. 사회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음주의 특성상 본 연구의 결과가 거리 두기 제한 해제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후속 연구를 통해 재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이 여성에 편중되어 있어 남성에 비해 여성 음주의 특성이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민규(1993)의 연구에 따르면, 남학생의 경우 사회적 영향이 음주 빈도에, 생활문제 관련 스트레스가 음주량에 영향을 미쳤지만, 여학생의 경우에는 사회적 영향만이 음주 빈도와 음주량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인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사회적 맥락의 설명력이 컸던 이유로 성차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향후 성별에 따른 음주행동 차이를 개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부분 J 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소수의 대학생을 표본으로 하여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과를 일반화하기 힘들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생태순간평가를 통해 문제 음주 대학생의 음주 여부와 음주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기존 횡단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인과적 추론의 증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당일 경험한 사회적 맥락, 음주동기, 정서,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와 당일 또는 익일 음주 행동을 연결 지음으로써, 경험과 맥락이 음주에 선행하여 원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함께 있는 사람의 음주량이 음주에 미치는 매우 강력한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대학생 문제 음주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개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학생의 문제 음주에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계하, 김옥수 (2000). 남녀 대학생들의 우울과 음주양상에 관한 조사연구. 간호과학, 12(1), 43-53.

김민경 (201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음주, 음주기대와 문제 음주에 대한 연구: 자존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아동복지연구, 10(3), 61-80.

김상희 (2011). 성인애착유형과 음주동기유형이 음주관련문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심리학과대학원].

김소정, 권정혜 (2019). 한국판 럿거스 알코올 문제 척도(K-RAPI)의 타당화 연구. 인지행동치료, 19(2), 229-249.

김종성, 오미경, 박병강, 이민규, 김갑중, 오장균 (1999). 한국에서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AUDIT)를 통한 알코올리즘의 선별 기준. 가정의학회지, 20(9), 1152-1159.

김한나, 김혜련, 최윤신 (2013).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 여자 대학생 자녀의 식이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우울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4(1), 61-72.

김현정 (2019.05.12.). 대학가 음주문화 변화... "술 강요받지 않아" 10명 중 9명 꼴.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310702/

노안영, 정민 (2003). 대학생 음주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상담학회, 4(1), 5-18.

박경민, 이민규 (2005).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음주동기가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3), 277-293.

박미숙 (2020). 스트레스와 정서, 알코올 갈망 간의 관계: 경험 표집법을 사용하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5(3), 569-584.

박수현 (2008). 대학생의 문제성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서울소재 대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1).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tag=&act=view&list_no=369858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 코로나19로 음주량 줄고 '혼술, 홈술' 늘어, 2020년 주류 소비·섭취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892

신원우 (2010). 심리적 취약성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1(3), 81-105.

신행우 (1999). 음주 동기와 음주 문제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5(1), 93-109.

신행우, 한성열 (1999). 음주동기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77-92.

유채영, 김혜미 (2010).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문제음주 관계 탐색에 관한 연구: 부정적 정서와 부적응적 대처전략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1(4), 137-163.

유채영, 이주경 (2016). 대학생 문제음주의 심리사회적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7(4), 93-121.

윤숙희, 배정이, 이소우, 안경애, 김세은 (2006).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 음주 및 흡연 행태. 보건과 사회과학, 19, 31-50.

윤혜미, 김용석, 장승옥 (1999).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와 한국 고등학생들의 음주행위 간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38, 153-179.

이미라 (2012). 대학생의 음주실태와 음주문제와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3(10), 4619-4628.

이민규 (1993). 음주행동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1), 165-179.

이병욱, 이충헌, 이필구, 최문종, 남궁기 (2000). 한국어판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 검사 (AUDIT: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의 개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사. 중독정신의학, 4(2), 83-92.

이지현, 최홍일 (2010). 대학생의 음주에 대한 기대가 문제 음주 경험에 미치는 영향: 음주 거절 효능감과 폭음을 매개로. 한국청소년연구, 21(4), 229-246.

장수미 (2017). 대학생의 우울, 대처동기, 음주문제의 관계: 자가처방가설의 검증. 보건사회연구, 37(1), 5-33.

정슬기 (2008). 대학생의 우울증세, 성장기 스트레스 유발사건과 문제 음주의 관계: 부모자녀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6(1), 113-134.

주영준, 오소연, 박상익, 이혜자, 유민규, 박은철 (2019).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행태 심층조사. 보건행정학회지, 29(1), 58-6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1). 2020 주류 시장 트렌드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atfis.or.kr/home/board/FB0003.do?act=read&subSkinYn=N&bpoId=3683&searchCondition=bpoSj&bcaId=0&searchKeyword=%ED%8A%B8%EB%A0%8C%EB%93%9C&pageIndex=1

Andersson, C., Johnsson, K. O., Berglund, M., & Öjehagen, A. (2007). Alcohol involvement in Swedish university freshmen related to gender, age, serious relationship and family history of alcohol problems. *Alcohol & Alcoholism, 42*, 448-455.

Benton, S. L., Benton, S. A., & Downey, R. G. (2006). College student drinking, attitudes toward risks, and drinking consequenc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 67*(4), 543-551.

Carey, K. B, & Correia. C. J. (1997). Drinking motives predict alcohol-related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8*(1), 100-105.

Clark, D. M., & Teasdale, J. D. (1982). Diurnal variation in clinical depression and accessibility of memories of positive and negative experienc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1*(2), 87-95.

Collins, R. L., Morsheimer, E. T., Shiffman, S., Paty, J. A., Gnys, M., & Papandonatos, G. D. (1998).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in a behavioral drinking moderation training program. *Experimental and Clinical Psychopharmacology, 6*(3), 306.

Cooper, M. L. (1994). Motivations for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our-factor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6*(2), 117-128.

Courtney, J. B., & Russell, M. A. (2021). Testing affect regulation models of drinking prior to and after drinking initiation using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35*(5), 597-608.

Cox, W. M., & Klinger, E. (1988).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2), 168-180.

Curtin, J. J., Barnett, N. P., Colby, S. M., Rohsenow, D. J., & Monti, P. M. (2005).

Cue reactivity in adolescents: Measurement of separate approach and avoidance reaction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6*(3), 332-343.

Dvorak, R. D., Lamis, D. A. & Malone, P. S. (2013) Alcohol use, depressive symptoms, and impulsivity as risk factors for suicide pronenes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49*(1-3). 326-334.

Dvorak, R. D., & Simons, J. S. (2014). Daily associations between anxiety and alcohol use: Variation by sustained attention, set shifting, and gender.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8*(4), 969-979.

Epler, A. J., Tomko, R. L., Piasecki, T. M., Wood, P. K., Sher, K. J., Shiffman, S., & Heath, A. C. (2014). Does hangover influence the time to next drink? An investigation using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38*(5) 1461-1469.

Gaher, R. M., & Simons, J. S. (2007). Evaluations and expectancies of alcohol and marijuana problems among college student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1*(4), 545-554.

Glantz, M. D., & Pickens, R. W. (1992). *Vulnerability to drug abus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asin, D. S., Stinson, F. S., Ogburn, E., & Grant, B. F. (2007). Prevalence, correlates, disability, and comorbidity of DSM-Ⅳ alcohol abuse and dependence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from the National epidemiologic survey on alcohol and related condition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4*(7), 830-842.

Kilwein, T. M., & Looby, A. (2018). Predicting risky sexual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 drinkers as a function of event-level drinking motives and alcohol use. *Addictive Behaviors, 76*, 100-105.

Kuerbis, A. N., Shao, S., Treloar Padovano, H., Jadanova, A., Selva Kumar, D., Vitale, R., Nitzburg, G., Vadhan, N. P., & Morgenstern, J. (2020). Context and craving among individuals with alcohol use disorder attempting to moderate their drinking. *Experimental and Clinical Psychopharmacology, 28*(6), 677-687.

Kuntsche, E., & Müller, S. (2011). Why do young people start drinking? Motives for first time alcohol consumption and links to risky drinking in early adolescence. *European Addiction Research, 18*(1), 34-39.

Kuntsche, E., Knibbe, R., Gmel, G., & Engels, R. (2006). Who drinks and why? A review of socio-demographic, personality, and contextual issues behind the drinking motives in young people. *Addictive Behaviors, 31*(10), 1844-1857.

Lee, C. M., Geisner, I. M., Patrick, M. E., & Neighbors, C. (2010). The social norms of alcohol-related negative consequence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4*(2), 342-348.

Logan, D. E., Henry, T., Vaughn, M., Luk, J. W., & King, K. M. (2012). Rose-colored beer goggles: The relation between experiencing alcohol consequences and perceived likelihood and valence.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6*(2), 311-317.

Luk, J. W., Fairlie, A. M., & Lee, C. M. (2018). Daily-level associations between negative mood, perceived stress, and college drinking: Do

associations differ by sex and fraternity/sorority affiliation? *Substance Use & Misuse, 53*(6), 989-997.

Maisto, S. A., Carey, K. B., & Bradizza, C. M. (1999). Social learning theory. In K. E. Leonard & H. T. Blane (Eds.), *The Guilford substance abuse series.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2nd ed., pp. 106-163). The Guilford Press.

Merrill, J. E., & Read, J. P. (2010). Motivational pathways to unique types of alcohol consequence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4*(4), 705-711.

Merrill, J. E., Read, J. P., & Barnett, N. P. (2013a). The way one thinks affects the way one drinks: Subjective evaluations of alcohol consequences predict subsequent change in drinking behavior.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7*(1), 42-51.

Merrill, J. E., Read, J. P., & Colder, C. R. (2013b). Normative perceptions and past-year consequences as predictors of subjective evaluations and weekly drinking behavior. *Addictive Behaviors, 38*(11), 2625-2634.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2002). *A call to action: Changing the culture of drinking at US colleges.* Bethesda, MD: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IH publication No. 02-5010.

O'Donnell, R., Richardson, B., Fuller-Tyszkiewicz, M., Liknaitzky, P., Arulkadacham, L., Dvorak, R., & Staiger, P. K. (2019).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of drinking in young adults: An investigation into social context, affect and motives. *Addictive Behaviors, 98,* Article 106019.

O'Neil, S. E., Parra, G. R., & Sher, K. J. (2001). Clinical relevance of heavy drinking during the college years: Cross-sectional and prospective perspective.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5*(4), 350-359.

Ramirez, J., Miranda, R. (2014). Alcohol craving in adolescents: bridging the laboratory and natural environment. *Psychopharmacology, 231*(8), 1841-1851.

Robinson, M. D., & Clore, G. L. (2002). Belief and feeling: Evidence for an accessibility model of emotional self-report. *Psychological Bulletin, 128*(6), 934-960.

Schulenberg, J. E., & Maggs, J. L. (2002).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lcohol use and heavy drinking among adolescence and the transition to young adulthood.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supplement, 14,* 54-70.

Shiffman, S. (2009).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EMA) in studies of substance use. *Psychological assessment, 21*(4), 486.

Shoal, G. D., & Giancola, P. R. (2003). Negative affectivity and drug use in adolescent boys: Moderating and mediating mechanis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1), 221-233.

Simons, J. S., Gaher, R. M., Oliver, M. N. I., Bush, J. A., & Palmer, M. A. (2005). An Experience sampling study of associations between affect and alcohol use and problem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6*(4), 459-469.

Stone, A. A. & Shiffman, S. (1994).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EMA) in behavioral medicine.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16*(3), 199-202.

Sudhinaraset, M., Wigglesworth, C., & Takeuchi, D. T. (2016).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of alcohol use: Influences in a social–ecological framework. *Alcohol Research: Current Reviews, 38*(1), 35-45.

Szeto, E. H., Schoenmakers, T. M., van de Mheen, D., Snelleman, M., & Waters, A. J. (2019). Associations between dispositional mindfulness, craving, and drinking in alcohol-dependent patients: An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study.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33*(5), 431-441.

Thomas, S. E., Drobes, D. J., & Deas, D. (2005). Alcohol cue reactivity in alcohol-dependent adolesc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6*(3), 354-360.

Thompson, E. R. (200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ternationally reliable short-form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8*(2), 227-242.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Wechsler, H., Dowdall, G. W., Davenport, A., & Castillo, S. (1995). Correlates of college student binge drinking.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5*(7), 921-926.

White, H. R., & Labouvie, E. W. (1989). Towards the assessment of adolescent problem drinking.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0*(1), 30-37.

논문 투고일 : 2024. 08. 08
1 차 심사일 : 2024. 09. 26
게재 확정일 : 2024. 10. 21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24, Vol. 30, No. 4, 455~476.

An Ecological Moment Assessment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College Students' Drinking in the Pandemic Situation

Saeyeon Hwang Dasarang Alcohol Hospital

Hoin Kwon The Jeonju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contexts regarding drinking, drinking motives, affect, and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alcohol consumption on the daily drinking occurrence and quantity among college students. A total of 56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14-day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EMA), reporting on social contexts related to drinking, drinking motives, affect, and negative consequences from alcohol use. Data were analyzed using multilevel modeling. As a result, at the between-person level, negative consequences from drinking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same day drinking occurrence. Additionally, evening outing plans and experience of negative consequences from drinking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quantity of alcohol consumed that day. At the within-person level, the drinking quantity of companions and enhancement motive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same day drinking occurrence, and the drinking quantity of companions were also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quantity of alcohol consumed on the same day. At the between-person level, the drinking quantity of companions were related to the next day's drinking occurrence, and the presence of evening outing plan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next day's drinking quantity. At the within-person level, negative consequences from drinking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next day's drinking occurrence, and both the drinking quantity of companions and enhancement motivation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next day's drinking quantit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plored factors related to the college students' drinking occurrence and quantity using the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By confirming the strong influence of companions' drinking amounts on individual drinking behavior, the findings suggest the need to establish preventive measures for problematic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from a socio-contextual perspective.

Key words : drinking, social context, negative consequences of drinking, drinking motivation, affect, college students,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EMA)